社 說

세상의 주인으로 창조하는 대학인

— 개강을 맞이하며

그 누가 말했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이 대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바야흐로 꽃샘바람 속에 새 봄의 숨결이 싹트면서 경희동산에 온 생명들이 움트는 소리 들려온다. 이제 모두가 긴 겨울 잠에서 깨어나 비어 있는 삶의 들판에 씨앗을 뿌려야 할 시간이다.

새 봄은 먼저 신입생들의 신선한 눈망울과 힘찬 가슴에서부터 시작된다. 초롱초롱 빛나는 꿈과 이상을 안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패기 있는 젊음을 더욱 채찍질해야 하기에 새 봄이 그들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영위해 나아갈 것인가? 이제 정말로 갈등하고 방황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자신과 이웃과 사회, 민족과 국가, 역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아가야할 길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첫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지 않으면 안된다. 자기를 올바로 안다는 것, 진정한 자아발견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능력과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 보고 극복해 나아가려는 태도를 말한다.

젊은 날이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에 불안하고 그러기에 방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때로는 덕없이 자기를 높여보아 허장성세하기도 하며, 아니면 자기를 천대하여 자학과 열등감에 사로 잡히기도 한다. 나와 세계에 대한 비관적이며서도 창조적인 질문을 부단히 제기함으로써 자신을 올바로 알고 실천해 나아가는 일이야말로 대학인의 첫번째 사명인 것이다.

두번째로 나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자유롭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와 평등의 정신에 기초하여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기 위하여 우리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주체의식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대학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의 정신이며 비판의 정신이고 창조의 정신이다. 깨어있는 정신, 살아있는 정신으로 우리는 대학생활을 영위해가야만 한다는 뜻이다.

세번째로는 끊임없이 탐구해야만 한다. 앎이란, 지식이란 모든 삶의 기초이다. 많이 아는 자, 올바로 아는자 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네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정신을 길러가야만 한다. 스승과 친구를 만나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올바로 사랑할 줄 알아야만 삶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지식도 지성도 지혜도 사랑의 정신으로 감싸질때만이 더욱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그곳은 인류의 오늘을 밝히고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는 학문의 전당이자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지닌 곳이다. 그러기에 대학은 모든 대학인들에게 영원한 정신의 고향이다. 그러므로 모든 대학인들은 먼저 자기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라! 자유로워라! 올바로 사랑하라! 항상 현실과 이상을 함께 생각하고, 나 홀로와 우리 함께를 더불어 사랑하며, 논리와 실천을 알맞게 조화시켜 가야한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이 우리 대학인의 가슴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철회해야

—T.S.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즈음하여

오는 9일부터 팀스피리트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된다. 지난 1월26일 정부와 미국은 기어이 '팀'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군사훈련에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 등지에서 파견되는 미군병력을 포함해 12만명의 한미 연합군이 참가하며, 핵무기로 무장한 항공모함과 폭격기, 걸프전 전쟁때 사용된 패트리어트를 비롯한 각종 미사일, 미합공모함 인디펜던트호 참가 등으로 볼 때 이번 팀스프리트 93훈련 규모가 종전에 못지 않은 대규모 핵전쟁 연습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북한을 겨냥한 연합상륙작전, 도하작전, 공중기동작전, 특공대작전, 핵폭탄투하작전 같은 야외기동훈련과 함께 컴퓨터를 동원한 훈련이 병행된다고 한다. 가히 이번 훈련은 북한의 남침위협 억제용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 공격용이라 할 수 있다.

지난 75년부터 시작되어 이번까지 17회를 실시하게되는 '팀'군사훈련 재개로 말미암아 한반도에는 화해의 물결이 아니라 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짙들고 있다. 나날이 호전되던 남북대화들이 동결되고 이행의 문어귀에 들어섰던 남북대화마저 백지화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팀'군사훈련이 중지된 지난해 남과 북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해 역사적인 남북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또 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들을 채택·발효시켰고, 핵공동위원회 등 공동의 이행기구들도 발족시켰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분단이 아니라 통일을 절실히 염원하는 우리 남과 북의 7천만 겨레에게 더 없이 큰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위업이며, 나아가서는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괄목할 만한 기여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었다.

'팀'군사훈련의 중지가 이처럼 남북대화의 진전과 평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입증이 됐는데도 이제와서 그것을 굳이 방해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와 평화와 남북대화의 전진을 바라지 않고 그것을 가로막으려는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93 '팀'군사훈련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훈련의 명분을 북의 핵개발 의혹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그 명분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수차 증명하면서 원천적으로 부정된 것이고, 또 여러차례에 걸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정한 핵사찰을 통해서 북의 핵정책의 평화적 정책과 결백성이 명확하게 입증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의심할 나위없이 해명되었다.

오늘 조성된 국제정세를 보아도 '팀'훈련재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 국제무대에서 동서대결의 냉전구도는 무너지고 세계는 긴장완화로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제추세이다.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할 때도 그랬고, '팀'훈련과 같은 대규모 전쟁훈련을 벌일때도 그것은 소련의 남하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그 명분은 설득력을 잃은 셈이 된다. 더욱이 핵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비핵국가인 북한을 상대로 핵위협을 하면서 핵전쟁연습까지 벌이는 것은 '핵무기 소유국이 비핵국가에 대해서 핵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핵확산 금지조약의 이념과 요구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미당국이 '팀'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며, 합의서 이행을 정지시켜 한반도의 정세를 대결시대의 원점으로 돌려세우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여 나아가서는 전 한반도를 미국의 지배밑에 두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매체비평

자본주의 꽃에 침식당한 '출판'

책은 소비하는 것인가, 향유하는 것인가, 책은 상품인가, 아니면 상품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사소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책에 대한 인식의 기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책을 제작하는 출판사의 태도가 바뀔 수 있으며, 책을 감미롭게 '화장'하는 출판물광고가 정당성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자본주의는 광고라는 매개체를 통해 선전되고 유포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듯하다. 출판물광고 또한 그렇다. 신문이나 잡지를 벗어나 '거대한 힘'으로 대중을 흔드는 TV, 라디오를 통해 출판광고가 발사되고 있으며, 출판물은 광고라는 매개체를 통해 대중의 손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의 일이다.

하지만 사람은 직접적 필요에 의해 도서를 취해야 하며, 혹은 그 내재적 본성과 목적을 통해 독자와 만나야 한다. 소비사회의 만화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이성적 선택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출판물광고에 대한 우려는 필요 이상의 양적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2년동안의 출판광고량을 보면 그 우려가 단순히 노파심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전파매체에 실리는 출판광고의 신장율은 가히 놀라울 정도다. 절대적인 수치의 매체별 광고량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신문이 83.3%로 주류를 이루지만, 급속하게 신장했는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파매체에 실리는 출판광고의 신장율은 가히 놀라울 정도다. 절대적인 수치의 매체별 광고량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신문이 83.3%로 주류를 이루지만, 신장율에 있어서는 신문이 49.6% 인데 비해 TV는 57.9%, 라디오는 95.5%로 신문의 신장율을 앞서고 있는 것이다.

광고의 증가로 출판문화, 독서문화는 크게 해독을 입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첫째, 출판사가 겪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다. 전파매체를 이용하는 출판광고가 많아지면서 노출빈도를 더 많이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광고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한다. 즉 "다른 출판사보다 더 많이"광고해야 자사 출판광고가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광고경쟁에서 비롯된 이러한 현상으로 출판사들이 '광고도산'을 맞게될지도 모를 일이다.

둘째, 과장광고 문제가 심심찮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베스트셀러" "○○판 돌입"등의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카피는 독자들의 이성이 아닌 감성에만 소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며, 그 명확한 근거도 없는 문구들이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좋은 책의 범주에서 점점 멀어지고, 책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있다.

이 성 수

(출판저널 기자)

한계 드러낸 새정부 인선

—제7공화국 내각 인선을 보며

사론

우리의 헌정사가 항상 그래왔듯이,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서 '개혁'이라는 말은 항상 말잔치의 주연을 도맡아 왔다.

최초로 문민시대의 정권임을 강조하는 김영삼정권도 지난 시점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개혁'이니 '신한국창조'니 하는 말들로서 자신들의 집권을 시작하였다. 부정부패의 총체적 일소라는 구호 아래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비롯한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겠다든지, 공직자 사회의 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사정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등의 정치사회적인 개혁구상들이 이야기되고 있으며,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김영삼정권은 신한국의 창조가 경제의 활성화에 기반한다는 인식하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를 대폭 완화시켜 부자의 욕을 확대시킴은 물론 전국민적인 고통분담으로 임금 및 물가를 잡아 국제경쟁력을 갖추겠다고 기업을 독한다.

여기에 덧붙여 김영삼정권은 5공과 6공의 개혁과 자신의 개혁은 다르다고 공공연하게 천명함으로써, 지난 시절의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났음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며 자신의 결의를 다지기도 한다.

이른바 '한국병'의 치료자임을 자처하는 김영삼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갈 새정권의 진용을 최근 잇달아 발표하였다. 취임식 며칠전에 단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진용의 발표에서부터 시작하여, 취임직후 내각의 각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었으며, 이제는 차관급 인사를 한다고 야단들이다.

이른바 한국병에 대한 각 부문의 '전문의'들이 선정되고 있는 셈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현 대통령의 지론에 입각해, 적당히 나누어 먹기 식의 인사를 지양하고 문민시대에 걸맞는 진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였지, 새 내각이나 비서진들의 면모는 지난 정권의 인사와는 일견 다른 점들이 눈에 띈다. 정치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은 별도로 하더라도, 재야출신 인사를 사회·문화 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라든가, 80년대 대학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민중과 지식인』의 저자이며, 실천적 지식인의 모범으로 존경받았던 한완상교수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으로 발탁된 점, 군출신이나 법조인 출신—이러한 포현 보다는 공안 검사 출신이라는 편이 적당하다—이 거의 독식해왔던 안기부장에 학자이자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한 것 등은 지난 시절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얼굴이 그얼굴'이라는 평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지난날의 인사가 '새술은 새부대에'답게야 한다는 우리의 속담에 걸맞는 인사로 변모한 것이다.

'경제는 현장출신형', '정치사회 관련은 파격형', '그외는 연공서열형' 인사로 특징지워지는 이번 인사가 국민대중들에게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을 들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당연할 것이다. 갓 출범한 정권에게 일정 기간 동안은 기회를 주고자 함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특히 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야당 생활을 한 경력과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보낸 경험이 있어서 다양한 인사들의 정표한 배합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 정권은 안정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점진적인 '개혁'을 정말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개혁이든 '개혁의 대상'이 있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개혁의 주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수석비서관이 된 재야출신의 모 인사는 월간지를 통해 김영삼정권이 소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기득계층에게 전혀 빚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혁에 있어서 부담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또한 부총리가 된 모 인사는, 호랑이(개혁대상)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집권여당)에 뛰어든 김영삼의 정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행태를 보였다고 말하였다. 물론 이들은 기득계층의 도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기득계층의 미묘한 역학관계를 역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넓혔다고 보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둘 다 김영삼정권의 개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보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 설익은 논쟁을 도모하기에 앞서, 앞으로 이들이 보여줄 개혁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한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자연히 밝혀지지 않겠는가?

원론적으로 말해서, '개혁'은 그에 걸맞는 '개혁주체'가 있을 때 가능하다. 사심없는 개혁이란 사심없는 개혁주체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이는 도덕적인 성숙함을 보이는 인사가 개혁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한 개인이 도덕적으로 건전해질 수 있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심없는 개혁주체란 개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계층'과 '그 대표자'들을 말하며, 개혁의 추진력은 오직 이들에게서만 나온다.

금번 새정권의 진용을 보면서, 필자는 이들이 과연 사심없는 개혁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대부분이 주어진 독재정권의 충실한 지지자들이 아니었던가? 이에 대한 항변 또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기독계층의 도움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한다고 해서 집권여당의 후보였던 사실마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적절히 잘 이용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다.

오히려 호랑이굴에 뛰어 든 이상, 자신의 입지를 그 안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도덕적 순수성에 기반하여 진정으로 추진하도록 견제하고 비판하자. 왜냐하면 지난날의 개혁이 우리에게 한갓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했었다 할지라도, 개혁은 만중에게 혁명적 열정을 잊아가리라는 우려보다는 더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뭰한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들의 극자적 민중은 이른바 소수의 '대자적 민중'이 주장하는 '개혁'이라는 허상에 또 다시 기만당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을 떨쳐 버릴 수 없음은 왜인가?

이 석 재

(대학원 석사과정·철학)

개혁에 걸맞는 새로운 인물 아쉬워

지속적인 견제와 비판으로 추진력 이끌어내야

"고민(?)아닌매듭"

세계로 꿈을 펴는 젊음

"이제 자신의 색깔을 찾자!"

하늘도 품을 수 있는 스무살 새내기를 위하여 —

보다 크고 넓은 세계로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
합격의 기쁨은 이제 가슴 한켠에 곱게 접어두자.
지금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할 때이므로.
대학이란 다양한 개성들이 모여 수많은 가능성을
시험하는 하나의 공연장 —
그리고, 나는 한켠의 배우와 같은 존재.
난 그 배역을 스스로 선택했고,
이제 나만의 색깔로 그 역을 소화해내야 한다.
구름이나 소나기 없이는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듯
대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자기발견은
수많은 도전과 시행착오 속에서 자신을
불사를 때 가능한 것이다.

인재를 아끼고 키우는데 남다른 정성을 쏟으며
성장해온 삼성은 자신의 색깔을 찾아 떠나는
스무살 새내기의 출발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